

胡集書會의 歷史와 特徵

- 古代 流浪藝人 說唱大會의 活化石을 찾아서

전홍철*

目 录

- I. 序論
- II. 胡集書會의 연원
- III. 胡集書會의 절차
- IV. 胡集書會의 공연
- V. 馬街書會와의 비교
- VI. 結論

I. 서론

중국 ‘民間曲藝의 活化石’이라고 일컬어지는 胡集書會¹⁾는 山東省 濱州市 惠民縣 胡集鎮 ‘書會路’ 일대에서 매년 음력 정월 12일에 열리는 說書 이야기

*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원장, 유통통상학부(중국학) 교수.

1) ‘胡集’이란 말은 胡氏 集成村을 뜻하며, ‘書會’란 이야기꾼의 회합을 말한다. 胡集書會는 우리나라의 절월대보름 격인 元宵節 즉 燈節에 거행되어 ‘胡集燈節書會’로도 불린다. 2016년 丙申年 胡集書會는 길거리 說書 競演 외에 民俗文化展, 濱州特色美食展, 民間문예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거행되었는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一. 期間: 正月10日-17日 二. 場所: 惠民縣 胡集鎮 ‘書會路’ 三. 주관부서: 惠民縣 胡集鎮 人民政府 四. 날짜별 주요 행사 【정월 11일】 擺搖臺 : 특별 초청된 노장과 신예 說書人들의 실내 경연대회. 【정월 12일】 오전에는 書會路에서 說書人들이 자유롭게 曲藝 경연 페스티벌을 진행하며, 오후에는 향촌 공연을 위해 상당수 說書人들이 이동함. 【정월 13일】 민간예술단 秧歌 공연 【정월 13일-17일】 향촌 이동 공연(送書進村).

꾼들의 경연대회이다. 胡集書會의 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으나, 북송 시기 현재의 산둥성 惠民에서 반주 음악에 맞추어 唱詞했던 설창예술 ‘說渾話’가 있었고, 북송 말년에도 ‘鼓子詞’와 ‘平話’가 이 지역에서 크게 성행하면서 書會가 시작되어 清代까지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호집서회는 매년 元宵節²⁾ 때 濟南、濰坊、濰博 등 산둥성 각 지역과 河北、河南、遼寧、黑龍江 등 외지의 이야기꾼들이 모두 모여 木板大鼓、梅花大鼓、木板書、滄州木板、西河大鼓、渤海大鼓、相聲、毛竹板書、評書、山東快書、山東琴書、漁鼓書 등 다양한 설창 공연으로 서로 우열을 겨루며 교류하는 民間曲藝 대축제이다.



胡集鎮 書會路에서 舉行되는 <胡集書會> 全景

필자가 胡集書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0여 년 전 濟南曲藝團의 說唱 배우들과 교류하면서였다. 이들은 매년 정월 12일경 山東省 濱州市 惠民縣 胡集鎮에서 거행되는 胡集書會와 河南省 寶豐縣에 열리는 馬家書會에 참가한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고, 특히 두 書會에서 공연되는 종목들 중 이제는 사라져버려 직접 보기 힘든 說唱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주어 본격적인 탐방과 연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 후 필자는 2012년부터 매년 胡集書會와 馬家書會를 번갈아 가며 답사해 왔으며, 이 논문은 수년 간의 현지 답사와 그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³⁾

2) ‘元宵節’은 음력 정월 15일을 말하며, 上元節, 上元佳節、小正月、元夕、燈節 등으로도 불린다. ‘宵’는 밤(夜)을 가리키며, 1년 중 달이 가장 밝은 때인 정월 보름을 ‘元宵節’이라 한다.

3) 胡集書會와 관련하여 빠트릴 수 없는 것은 板式體 회곡의 전통이다. 중국회곡사는 板式體 회곡과 聯曲體 회곡이 함께 병행 발전해왔고, 특히 板式體 회곡의 전통은 洞簫

II. 胡集書會의 기원

胡集書會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학설이 있으나, 북송 시기 현재의 산동성 惠民에서 반주 음악에 맞추어 唱詞했던 설창예술인 說渾話가 있었고, 북송 말년에도 ‘鼓子詞’와 ‘平話’가 이 지역에서 크게 성행하면서 書會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1. 移轉說

惠民縣은 예전에 厭次, 樂安 등으로 불렸으며, 여러 차례 이전한 내력을 갖고 있다. 惠民縣의 위치에 대한 과거의 내력을 살펴보면, 秦漢 시기에는 神頭(지금의 德州市 陵縣 神頭鎮), 東漢 때에는 桑落墅(지금의 惠民縣 桑落墅 북쪽 陽信縣 閔家村), 魏晉 시기에는 馬嶺(지금의 惠民縣 何坊鄉 二郎村 부근), 唐나라 후기에는 陷棣州(지금의 惠民縣 辛店鄉 先棣州), 後梁 때에는 新州(지금의 惠民縣 清河鎮), 북송 때에는 喬家莊(지금의 惠民縣)에 위치했었다.

『惠民縣志』 光緒 12년 條目에는, “거주민이 천여 가구이고, 수목이 울창하며, 땅이 솟아 있다.(居民千家, 樹木叢蔽, 土地突起.)”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이곳이 홍수를 예방하는 높은 지대로 살기 좋은 곳이어서 많은 주민들이 거주했었음을 말해 준다. 이처럼 惠民縣은 거주민이 많았던 탓에 많은 寺院이 건립되어 이십여 곳에 이르렀으며, 사원에서는 廟會⁴⁾가 거행되었다. 당시 묘회 때는 전문 희곡공연단의 공연 외에 민간 곡예인들이 거리에 장막을 펼치고 설창 공연을 했다.

강창문학 寫卷의 등장 이후 寶卷, 說唱詞話, 儺戲 등의 자료가 꾸준히 발견되면서 증명되어 왔다. 오늘날 거행되고 있는 胡集書會와 馬家書會의 존재는 중국희곡사에서 板式體희곡이 끊임없이 명맥을 이어 발전해 왔고,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민간 축제이다.

4) ‘廟會’는 중국 민간의 사회 활동의 일종으로 고대에 土地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것에서 기원하였다.

대체로 묘회는 사원 혹은 사원 부근에서 특정 명절이나 기념일에 거행되며, 우리 나라의 장날처럼 농민과 상인이 자신의 농산물과 토산품 그리고 각지에서 수집한 물품들을 들고 와 시장터에서 내다팔곤 하였다. 또 이 때 민간 예술인들이 무대를 마련해 가무와 곡예를 공연했는데, 오늘날 매년 춘절 때 열리는 호집서회와 매우 흡사하다.

송대 때 북방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이 음악 반주에 맞추어 익살스런 이야기를 가창하는 '설화화(說譚話)'가 유행했으며, 송대 말에는 趙德林이 '鼓子詞'를 처음 시작했고, 評話 또한 棣州 지역에서 크게 성행한 바 있다. 특히 棣州의 민간藝人들은 늘 모여 기예를 겨루며 교류했는데 이것이 '書會'의 모태라 할 수 있다.

특히 1279년 몽고군이 棣州 침략했을 때 이 지역의 민간 예인들은 생존을 도모하면서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였으니 그곳에 바로 胡家 集成村인 胡集鎮이었다. 호집서회는 바로 이로부터 유래하였다는 것이 '移轉說'이다.⁵⁾

2. 競爭說

전국 각지의 설화인들이 모여 경쟁하는 대회를 거행하게 된 것이 호집서회의 기원이라는 설이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한 해 春節 무렵 남방에서 대나무 통으로 만든 漁鼓⁶⁾라는 악기로 반주를 넣으며 설창하는 예술단과 북방의 지방 전통극 하나인 落子⁷⁾를 공연하는 예인들이 호집진 일대에서 만나 공연으

5) 韓克順 著, 『胡集書會』, 中國文聯出版社, 2010, pp.39-40

6) 漁鼓는 '道筒', '竹琴'이라고도 칭하는 악기이다. 주로 湖北, 湖南, 山東, 廣西 지역에서 희곡 공연 때 많이 사용하던 악기로 宋代에 처음 출현하였다.

7) 落子是 주로 하북성 지역에서 유행하였던 희곡 공연으로 秧歌類에 속하며 15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滄州 일대에서 유행하였으며, 滄縣과 南皮縣에서 성행하였다. 스토리는 남녀 간 애정과 일반적인 생활을 소재가 주를 이룬다. 唐山落子가 발전하여 현재의 評劇이 되었다.

로 인기 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전통극 경합은 마치 무술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루는 것과 같이 치열했다. 이듬해 양측은 자기편 예인들을 더 불러 모아 다시 한 번 경연을 했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속한 결과 예인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으며 관중들도 크게 호응하며 열기를 띠자 그 영향이 점차 확대 되었다. 후에 예인들은 경연을 통해 서로 교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서로를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다들 가난한 설서 예술인 입장에서 서로 어울려 생계를 이어나가려면 서로의 기반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며 서로 화합하고 단결함이 중요함을 깨우쳤던 것이다. 이에 예인들은 매년 정월 12일 胡集에서 집회를 갖기로 약조하고, 설서를 통해 우정을 나눴으며, 書目을 교류하고, 기예를 전수하면서 각자의 세력을 불려갔다.⁸⁾ 이로부터 書會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으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한다.

Ⅲ. 胡集書會의 절차

필자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胡集書會를 답사하였다. 답사를 통해 파악한 胡集書會의 절차는 일반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차이가 발생한 연유는 예전의 胡集書會 진행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 답사와 기존 자료를 토대로 胡集書會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 준비 : ‘前節’

호집서회는 정월 12일 개최되는데, 본격적인 서회 축제가 개최되기 전의 준비 과정을 ‘前節’이라 한다. ‘前節’ 때는 보통 멀리서 오는 說書인들이 書會

8) 호집서회에서 說書를 하는 예인은 濟南、濰坊、濰博인들이 주축을 이루며, 河北、河南、遼寧、黑龍江 등의 예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에 늦기 않기 위해 보통 칩구와 악기들을 챙겨 삼삼오오 구름처럼 모여든다. 또 여러 아마추어 설창 애호가들도 대거 합류한다. 그리고 호집진에 도착하면 현정부에서 배정한 숙소로 흩어진다. 설창 예인들은 호집진(胡集鎮)으로 오는 도중, 자신들의 기예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며, 대체로 행사 하루 전 도착한다. 단체로 “望空”、“報門”이라 불리는 우의를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전 행사 과정이 ‘前節’이다.



胡集書會擺播臺賽(호집서회 사전 경연대회)

前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의 여비와 공연비를 받아 胡集書會에 참가하는 說唱藝人들의 事前 競演이다. 事前 競演은 승자 선별 경기 즉 “擺播賽”라 하며, 학교 강당과 같은 실내에서 개최한다. 호집서회에 참가한 藝人들은 경연 성적에 따라 참가 경비를 차등 지급받는다.⁹⁾

2. 본행사 : ‘正節’

‘正節’은 호집서회가 본격적으로 거행되는 기간 즉 정월 12일부터 16일까지를 가리킨다. 정월 12일 아침, 여러 지역으로부터 몰려든 설창 예인들은 공연 장소에 모여, 각자 구역을 선택해 제각기 무대에 올라 기예를 선보이기 시

9) 필자가 2014년 정월 12일에 개최된 호집서회를 답사했을 때, 사전 경연은 호집진 마을회관에서 열렸으며 설서 예인들 외에 일반 관중은 거의 없었다. 경연은 하루 종일 진행되었는데, 경연 성적에 따라 공연비 지급의 차이를 두었으며 교통비(路費) 조로 평균 3,000위안(元)을 받았다고 참가자들은 말하고 있다.

작한다. 오전 10시가 되면 사방에서 연주소리(북소리)가 울리고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書會의 정식 시작을 알린다. 그리고 이는 書會가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다.



정월 12일 아침, 胡集鎮 書會路의 공연 모습

正節 기간 중에 정월 15일 元宵節(정월 대보름.)을 맞이하게 되는데, 현지 민간에는 용등놀이, 扭秧歌, 나무사다리 춤인 踩高跷, 사람을 들어올리는 전통놀이 抬芯子, 雜耍, 武術 등 다양한 曲藝 공연이 풍성하게 펼쳐지며 書會가 절정에 다다른다. 이때 胡集 인근 지역의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려와 설창 노점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 관람한다. 각 촌에서는 전문가를 書會에 파견하여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고, 사회에 참여한 예인들은 거래가 성립한 촌에 가서 다시 공연을 한다. 그리고 촌에서는 예인들에게 공연비를 지급한다. 정월 12일 이후 며칠 동안 각 촌에서는 예인들의 설창 소리가 밤낮 이어진다. 또 촌에서 더 머물러달라고 만류하면 예인들은 계속해서 설창을 불렀으며, 촌사람들이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면 갈 길을 서둘러 다른 촌으로 가 공연을 한다.

3. 사후 행사 ‘偏節’

정월 17일부터 20일까지를 偏節이라고 부른다. 偏節이 지나고 나야 비로소 서회가 끝이 난다. 이 기간에 藝人들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고 書目을 교환한다. 또 각자의 기예에 대해 토론하고 선생은 제자를 받기도 한다. 편절을 마지막으로 書會가 해산이 되면 예인들은 거주지로 돌아가는데, 때때로 기예

2014中国·胡集灯节书会(国家首批非物质文化遗产)下村安排			
地 点	人 员		联系人
主会场	靳立欣 王祥伟 冯增奇		崔连军
敬老院	许同贵 赵小华 高淑玲 京东大鼓		崔连军
陈集办	1、苗士芹 石秀芬 赵凤祥 2、王玉荣 陈春亭 3、张国安 梁国芬		苑书民
店子办	1、马士海 刘清华 2、梁国芬 张国安 3、杨建平 白 鲜		林波
白桥办	1、石小霞 张廷军 2、李洪彬 王述彬		马立新
石集办	1、王秀兰 王秀花 2、刘永建 韩书碧 3、田珍肖 张山波		许海亮
夏翟办	1、赵廷芳 赵建桥 2、赵吉庆 赵秀芬		路克刚
成良办	1、朱廷安 李佰荣(丢个马村) 2、贾贺生 杨兰君 3、刘小重 刘银良		成方平
胡集办	1、王金升 王 蕾 赵廷芬2、周金山 周艳霞 3、白曰华 马秀亮		路旭木
月桥办	1、王廷果 李小元 2、兰尊侠 位长柱 3、李春田 王老六		王兴盛
王惠理办	1、靳立芬 王清华 2、石振军 李满良 3、游艳亭 李景祥		于丙月

郷村 公演 配定 案内板

를 팔며 귀향길에 오른다. 그리고 이듬해 정월 12일이 되면 이들은 또다시 사방팔방에서 胡集村으로 모여든다.

IV. 胡集書會의 공연

호집서회는 민간 유랑 설창 예인들의 거리 공연 대축제이다. 호집진 시내 중심가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유랑 예인들의 공연은 그야말로 야단법석이다. 각자 마련한 길거리 무대에서 예인들은 북과 三絃 등 악기 반주에 맞추어 소매를 걷어 올리고 목소리를 높여 기예를 펼친다. 소위 “하늘을 장막으로 삼고, 땅을 무대 삼아(以天爲幕, 以地爲臺)” 각자 출신 지역 사투리로 노래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공연이 벌어지는 길거리 무대에는 수많은 관중들로 빼곡히 둘러싸여 그야말로 인산인해다.

호집서회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설창 공연 종목은 西河大鼓, 木板大鼓, 毛竹板書, 評書, 渤海大鼓, 山東快書, 山東琴書, 漁鼓書 등 다양하며, 遼寧과 河南 등 외지에서도 참여해 數來寶, 河南墜子, 窯調¹⁰⁾, 繮大鼓, 河間大鼓, 東路大鼓 등도 선보인다.

10) ‘요조(窯調)’는 예전 기방(妓房)에서 부르던 곡조를 말한다.

1. 木板大鼓

木板大鼓는 鼓子快書라고도 하며, 하북성 중부 石家莊 일대가 대표적인 공연 지역이다.

木板大鼓는 滄州木板과 함께 명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희귀 민간 설창 곡예이다.

중국 관련 부서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木板大鼓의 원형을 간직한 공연이 가능한 예인은 10명이 채 되지 않으며, 가장 나이가 많은 예인은 70세 가장 젊은 사람은 56세이다.¹¹⁾

목판대고의 연원과 창시자에 대해서는 현재 알 길이 없다. 연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 목판대고는 예전 ‘小口鼓’라고 불렀는데, 南皮縣 賈家九堡村의 李尙志라는 사람이 木板을 이용해 설창 공연을 하면서 생겨났다는 설이다. 이 씨의 제자로는 河間人 張百奎, 大城人 曹占奎, 崔登奎, 李振奎, 鄧殿奎 등이 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설은, 香河縣의 원로 예인 陳懷德의 말에 근거를 둔다. 淸나라 乾隆 때 李文通이란 산둥 사람이 기근을 피해 京東으로 거처를 옮겨 정착하면서 小口大鼓를 부르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는 제자인 曹占奎, 崔登奎, 李振奎, 鄧殿奎, 張百奎에게 전수하였으며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



木板大鼓

11) 중국 문화부에서 木板大鼓의 전통을 잇기 위해 양성반 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습자가 적어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져가고 있는 민간 곡예이다.

‘淸門五奎’라고 불렀다고 한다.

목판대고의 연원과 관련한 두 가지 설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지만 상통하는 부분이 아주 많다. 예를 들면, 淸門 및 五奎 중의 曹占奎, 崔登奎, 張百奎의 성명이 동일하다. 李殿奎는 李振奎로, 鄧連奎는 鄧殿奎로 단지 한 글자가 다를 뿐 이름이 매우 비슷하다. 전자는 예술인들의 족보에 근거한 것이며, 후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것을 근거로 하고 있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李尙志와 李文通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

木板大鼓는 淸 乾隆時代에 이미 존재했음이 확실하다. 淸 咸豐 시기(약 1851년 전후) 大城縣 淸門木板大鼓의 명가 田東文[鄧連奎의 제자], 馬瑞林[馬大傻子라 불렸다], 馬瑞河[馬三瘋子라 칭함] 3인은 모두 목판대고의 명인이다. 특히 馬瑞河는 나중에 木板을 鋼板으로, 中三弦을 大三弦으로 교체했고, 전통적인 곡조도 새롭게 하여 木板大鼓와 차별을 두었다. 또 그의 제자 朱化麟을 통해 더욱 새롭게 하여 西河大鼓로 발전시켰다.

木板大鼓는 그 후 北京과 天津에 유입되었고, 수많은 예인들을 거치며 변화되어 京韻大鼓가 되었다. 木板大鼓 전문 예인 田玉福의 제자 安次縣 사람인 翟青山과 魏德祥은 木板大鼓와 落腔調를 기반으로 하여 單琴大鼓를 창제하였다. 또 동일 지역인 河北 북부의 廊坊, 唐山, 承德 등 지역에서 일찍이 유행하던 京東大鼓, 樂亭大鼓는 모두 木板大鼓에 해당하는데, 현지 민가의 고사와 곡조를 결합하여 유행한 설창 예술이다.

淸 乾隆 중엽(1756년 전후) 香河縣 鄧連奎¹²⁾는 단일한 형식의 木板大鼓를 平板, 二六, 攢板, 塚板 등으로 개선하였다. 또 목판을 강판으로 대신하여 박자를 맞춰 연주함으로써 기존의 木板大鼓와는 매우 달랐다. 이는 ‘京東怯大鼓’라고 불렀고 나중에 다시 변화하여 ‘京東大鼓’가 되었다.

淸代는 木板大鼓가 매우 흥행한 시기였지만, 民初에 이르러 점차 쇠퇴하여 오직 滄州 일대에서만 木板大鼓가 공연되었다.¹³⁾ 滄州 木板大鼓를 대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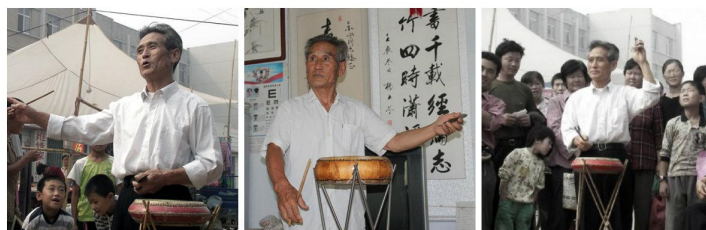
12) 일설에는 鄧殿奎라고도 함.

13) 滄州에는 王福貞과 穆漢靑의 두 문파가 있었다. 王福貞의 뿌리는 揚世友를 스승으로 섬기며 木板大鼓를 改唱하여, 20세기 4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滄州 일대에서 명성

인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사람은 北關 사람인 龐鳳城 (1840--1920) 이다. 그는 龐爲李의 제4대 계승자로 동북, 산둥, 천진 등 지역에서 활동하며 많은 사람에게 전수하였다. 전수받은 사람 가운데 胡金祥[滄縣 義和莊人], 趙金香, 曹金升 등이 가장 명망 있는 제자들이다.¹⁴⁾

2. 東路大鼓

東路大鼓는 山東 濱州와 濰坊 지역에서 유행한 說唱藝術로, 濱州 東路大鼓와 諸城 東路大鼓 둘로 나뉜다. 諸城 東路大鼓는 ‘諸城大鼓’라고도 불리며, 이전에는 ‘東口大鼓’ 혹은 ‘小東口’라고 불렸다.



東路大鼓

東路大鼓 전문 예인으로는 臺五, 丁四, 張老十, 王仲欣 등이 있으며, 그 중 臺五와 丁四가 가장 이름이 나 사람들이 “南丁四, 北臺五”라고 말하곤 했다.

을 떨쳤다. 사람들은 그에게 ‘滄州紅’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는데, 비교적 유명한 제자로는 張祺信, 路祺林, 劉祺明 등이 있다. 또 다른 문파에 속한 穆漢靑과 그의 오랜 파트너 朱恩波는 木板大鼓로 큰 명성은 얻은 설창 예인이다.

14) 이밖의 다른 제자들로 李寶興, 姜寶升, 高寶泉 등이 있다. 또 姜寶升의 뛰어난 제자로는 溫貴泉, 何貴海가 있으며, 溫貴泉의 제자 劉印在는 20세기 중엽 이후의 木板大鼓 名人이다. 그의 아들 劉建軍은 허베이성 예술단원 木板大鼓 예인으로 西河大鼓와 京東大鼓를 함께 불렀다.

당시 공연 주요 레파토리로는 回龍記, 金簪記, 絲絨記, 綉鞋記, 香蓮帕, 劉公案 등이 있었으며, 그 외에 呂洞賓戲牡丹, 羅成問卦, 單刀赴會, 拷紅 등 소단락들도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說唱 공연 방식으로는 集市說書, 廳房說書, 炕頭說書 세 가지가 있다.

먼저 集市說書는 민간 직업이야기꾼의 장편 공연으로 연속극처럼 한 회씩 이어가며 진행한다. 대표 작품으로는 劉公案¹⁵⁾, 濟公傳, 楊家將¹⁶⁾, 武松 등이 있다. 廳房說書는 지역 권문세가가 설창의 고수를 초빙하여 집안 대청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집주인은 차를 마시거나 식후의 여가 시간에 說書를 즐겼는데, 이는 설창이 사대부 집안의 고상한 취미에 부합했음을 말해준다. 說唱의 줄거리는 주로 才子佳人들의 風流와 情事와 관련이 있었으니 四海棠, 香蓮帕 등이 그 사례이다. 炕頭說書는 아마추어 예인이 혼자서 설창하거나 책에 쓰여있는 대로 읽어주는 형태를 말한다. 가끔 해설을 하기도 했는데, 가정 윤리가 주된 소재였고, 대표 작품은 巧奇冤과 綉鞋記를 들 수 있다.

앞에서 東路大鼓 전문 예인으로 臺五와 丁四가 가장 유명했다고 했는데, 특히 臺五는 東口大鼓를 집대성한 인물이다. 또 王仲欣은 臺五와 張老十 등 東口大鼓 명가의 심오한 기예를 터득한 인물로 諸城 曲藝을 기초로 東口大鼓를 諸城大鼓로 발전시켰다.¹⁷⁾

15) 乾隆年間에 유옹(劉雍)이 임금의 뜻을 받들어 황후의 형제들을 조사하고, 제남(濟南)에서 돌아다니며 나랏일을 돌본 이야기.

16) 북송 때 나라와 가정을 돌보고 지킨 名將 楊家에 관한 이야기.

17) 王仲欣은 相州鎮 學究村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大鼓를 몹시 좋아하였다. 그는 일찍이 여러 차례 臺五와 張老十 등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타고난 자질도 있어 大鼓의 창법을 빠르게 습득하였다. 1958년 가을 소학교 교사였던 王仲欣이 농업전시관을 조사하면서 大鼓 형식으로 大豆 풍작을 기원하는 곡을 창작하였다. 그는 東口大鼓를 기반으로 臺五 리듬(唱腔)의 진수를 흡수하였다. 또 악보를 기록하고 정식 명칭을 '諸城大鼓'라고 했다. 이어 그는 諸城大鼓의 형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인 諸城大豆喜獲丰收를 창작하였다. 이 곡은 무대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수십 번 공연할 동안 객석에 빈 자리가 거의 없었다. 1960년 2월 諸城大鼓 공연 프로그램은 昌濰 합동 공연에 참가하였으며 우수 공연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다. 또 濰坊 문화관과 방송센터에서 녹화본을 정기적으로 방송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같은 해 3월 諸城大鼓 공연팀은 산동성 문예 합동공연에 참가하여 우수 공연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그 후 민간 곡예 애호

東路大鼓의 風格은 참신하고 豪放하면서 강함과 부드러움이 잘 어울려 있다고 평해지다. 반주에는 북(鼓), 板、三弦 외에도 墜琴이란 현악기가 추가된다. 唱腔은 기본적으로 고정적이며, 소리의 높고 낮음 즉 頂板唱과 腔落板이 뚜렷하다. 첫 구(首句)는 보통 중음 “5” 로 시작하며 음조가 은은하고 박자가 느리다. 결구는 보통 주음 “1”로 마무리하며 “느린 결말(慢結尾)”이라고도 하며 곡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하며, 대체로 현악기로 마무리한다.

1960년대 이후, 東路大鼓는 재차 변화하였는데, 民歌과 茂腔¹⁸⁾--山東省 濰坊、青島、日照 일대에서 유행하는 지방 희곡---요소를 도입하였다. 연출 형식은 다양하여 독창(獨唱), 대창(對唱), 군창(群唱) 등이 있다. 70년대 말 전통극의 복원 공연이 활발하였고, 이때 諸城大鼓도 자주 공연될 수 있었다. 하지만 80년대 말에 들어와서, 대중가요 등의 영향을 받아 설창 예술을 감상하려는 관중이 급감한 탓에 소멸의 위기에 이르렀으며, 오직 春節 晚會(이브닝 쇼)에서나 때때로 들을 수 있을 뿐이다.

3. 魯北大鼓

‘魯北’은 산둥 북쪽 지역을 의미하며, 예로부터 이곳은 명이 발달한 곳이었다. 魯北大鼓는 民國 시기에 생겨났는데, 信陽鄉 謝家村의 설창 예인인 謝寶華에 따르면 魯北 지역의 민간 전설과 그 지역의 곡조가 결합하여 창시되었다고 한다. 謝寶華는 조상 대대로 가난하여 공연으로 생계를 이었던 유랑 예인이다. 그는 9세 때 부친에게서 竹板을 배웠고, 훗날 大鼓書를 배웠다. 謝寶華는 천부적 자질을 가진 예인으로 성량이 대단히 풍부했다. 그의 나이 11살 때 鞭打芦花記, 朱元璋放牛, 黑驢段, 火焰山, 豬八戒拱地 등을 각색하여 직접 노래하고 연주하였다.¹⁹⁾ 그리고 이 설창 예술이 魯北大鼓書라 불리게 되었다.

가들이 잇달아 諸城에 와서 大鼓를 배우면서 東路大鼓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8) ‘茂腔’는 최초에는 “周姑調”라 칭했는데, 姓이 周씨인 비구니가 唱한 탓에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이밖에 “膠東之花”라는 칭찬의 말이 붙기도 했으며, “肘鼓子”、“周姑子”、“軸棍子”、“正歌子” 등의 별칭을 갖고 있다.

魯北大鼓는 그 지역의 방언과 민간 곡조를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흥부에서 터져 나오는 맑은 소리와 풍부한 음색으로 가득해 한밤중 먼 곳에서도 그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魯北大鼓

魯北大鼓는 小鼓定点, 月板, 三弦, 墜琴의 반주를 곁들여 공연하는 곡조가 긴 설창예술이다. 주요 板式으로는 頭板, 二板, 三板, 流水板 그리고 四板 등

- 19) 謝寶華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중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 당시 西河大鼓로 명성이 자자했던 설창 예인 左金魁이 謝寶華를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불과 12미터의 거리에서 서로 무대를 만들어 설창 공연으로 겨루었는데, 사흘 동안 밤낮으로 결전을 벌였으나 우열이 가려지지 않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이 때 謝寶華는 나이가 22세였는데 이를 계기로 그는 크게 성장하였다. 문화대혁명 시기 謝寶華는 당의 문예사상을 선전하는 노래로 부르기를 시작했고, 산아제한 정책(計劃生育), 낡은 미신 타파, 과학적 영농 선전 등을唱했다. 이외에 그가 불러 인기를 끈 작품으로는 張大娘訴苦, 張開明獻地, 鬪爭孫燒鷄, 雪夜救親人 등이 있다. 그가 창안한 爆破挑河는 산동성 설창 문예 공연에서 창작, 연출 부문 2등 상을 수상하였으며, 1982년과 1984년 如此多情, 大老高揭榜, 送馬 등은 惠民縣 설창 문예 공연에서 연출 부문 1등 상을 수상하였다. 1959년 중국 설창 협회의 山東 지부에서는 謝寶華를 회원으로 맞이하였고, 현의 鼓書院 원장과 說唱團 단장을 역임하였다. 문화대혁명 후 謝寶華는 당의 배려 하에 다시 성의 설창 협회 회원이 되었으며, 그 지역의 설창 협회 이사로 선임되었다. 謝寶華는 40명이 넘는 제자가 있었고, 그 중 張寶亭, 孫文義, 劉振國, 楊文芝 등이 훗날 이름을 알렸다. 謝寶華는 노년기에 조카 謝洪崗과 차남 謝洪印을 후계자로 양성하는데 전념하였다. 謝寶華와 그 제자는 주변 10여 개 현에서 공연을 하였고, 그들의 공연은 80년대초 절정에 달하였다. 특히 無棣縣, 慶雲縣, 海興縣에서는 명절 때가 되면 서로 다투어 그들을 초청하였으며, 수만 관중이 공연의 매력에 흠뻑 취하곤 했다 한다. 하지만 1995년 謝寶華가 세상을 떠난 직후 여러 사정 상 공연이 중단되었다.

이 있다. 가사는 대체로 3자, 7자, 10자로 되어 있으며, 上句와 下句로 구분된다. 공연은 보통 판의 박자에 맞추어 하며, 尾字는 평균 다섯 자로 대체로 음을 길게 끌어 부른다. 중간에 각종 板式이 교차하는데, 流水音板 위주이며 ‘唱腔’ 기교를 선보인다. 창 시작 전 일반적으로 한 단락의 줄거리 대사가 있으며, 주요 줄거리 내용을 약술하며, 농담이나 비꼬는 말 그리고 방언 등이 삽입된다. 이는 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속칭 ‘拴包袱’라고 한다. 또한 한 차례 警堂木²⁰⁾를 쳐서唱的 시작을 알린다.

魯北大鼓의 이야기 공연은 소박하며, 유머와 해학이 넘친다. 줄거리는 주로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로 다루며, 대표 작품으로는 鞭打芦花記, 雙秃鬧房, 羅成算卦, 朱元璋放牛, 傻子走親, 紅月娥做夢, 朱賣臣休妻, 金陵府, 烏龍傳, 鬪爭孫燒鷄, 雪夜救親人 등을 들 수 있다. 극중 인물은 관중을 슬프게 만드는 곡조를 창하기도 하지만, 웃음을 자아내는 인물들도 많이 등장한다. 또한 尾音을 길게 끌어 관중들에게 여운을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공연자는 대체로 민간 풍속에 능해 紡線, 做鞋, 推土, 挖溝 등의 장면을 예술적으로 연기해 관객과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는다.

현재 信陽縣 정부는 전통 문화를 보호하고, 가치있는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魯北大鼓의 자료를 수집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天津, 河北, 德州 등 지역에서는 20여년 전 공연을 중지했던 謝寶華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 지원하면서 魯北大鼓가 계속 전승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4. 渤海大鼓

渤海²¹⁾大鼓 역시 기본적으로 북 장단에 맞춰 소리꾼이 창과 아니리를 섞어가며 긴 이야기를 공연하는 전형적인 설창 예술이다. 山東省 濱州市 沾化縣

20) ‘警堂木’은 청중을 주의를 모으기 위해 치는 나무로 만든 도구이다.

21) ‘渤海’는 예전에 ‘勃海’, ‘北海’라고도 했으며, 遼寧, 河北, 山東 3개 성과 天津市를 끼고 있고 지도 상에서 보면 조롱박 모양이다.

河家村의 소리꾼인 魏尊昌이 西河大鼓를 기초로 독창적으로 개발한 설창예술이다. 東路大鼓, 京劇, 河北梆子 등과 같은 중국 설창과 전통극의 멜로디를 융합시켜 만들었다.



渤海大鼓

渤海大鼓는 노래의 곡조가 높고 우렁차며 구성지다. 소박한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강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소리와 감정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渤海大鼓의 曲目 가운데 삼국연의 대목(三國段) 공연이 가장 유명하다.

渤海大鼓의 창시자는 魏尊昌(1913-1989)으로 알려져 있다. 魏尊昌은 18세 때 6개월간 교사를 하다 그만 두고 木板大鼓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다. 1943년 東路大鼓의 名人 文寶祥 문하에 들어가 東路大鼓를 배운 후 大鼓、京劇、梆子 등의 창법을 木板大鼓 융합시켜 독자적인 渤海大鼓 창시했다. 이러한 연유로 渤海大鼓를 ‘渤海三合鼓’라고도 칭한다.

5. 毛竹板書

板書 또는 毛竹板書, 竹板快書라고 불렸으며, 속칭 大落子 또는 京口落子라고 알려져 있고, 明清 시기의 數來寶, 蓮花鬧로부터 발전해 왔다. 원래는 걸인

이 길에서 구걸할 때 부르던 노래였다. 清末 民初에 河北省 중부 평원에서 흥행하기 시작한 판서는 현재도 河北省의 도시와 농촌에서 광범위하게 공연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7-80년 원로 예인 張福堂이 가장 먼저 산둥 지역에 들어가 공연했고, 그 후 尹福盛, 王來恩 등도 공연하면서 산둥에 본격적으로 유포되었다.

毛竹板書의 공연 스타일은 매우 간단하지만 표현력만은 대단히 풍부하다.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毛竹板書의 공연에 頭板、大按板、二按板、苦相思、流星趕月²²⁾、垛子板²³⁾、花板、快板 등 매우 다양한 곡조와 연출 방식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 毛竹板書의 이야기 공연은 중편이 가장 많고, 장편도 소수 있다. 毛竹板書의 대표적인 스토리 목록으로는 武松傳, 左連城告狀, 白綾扇, 王定保借當 등이 있다.



毛竹板書

6. 西河大鼓

호집서회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호집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西河大鼓다. 西河大鼓는 河北 지역을 중심으로 河南, 山東, 北京, 天津, 內蒙古, 東北 지역에서 유행한 설창 예술로 大鼓書, 梅花調, 弦子鼓, 西河調, 河間大鼓 등으

22) 유성(流星)이 달을 쫓는 듯 아주 빠른 리듬을 나타낸다.

23) ‘타자판(垛子板)’은 낭송(朗誦)류의 곡조를 말하며, 주로 山東琴書에 사용된다. 京韻大鼓의 ‘平腔’, 天津時調의 ‘數子’ 등도 비슷한 낭송류 곡조이다.

로도 불렸다. 우리 나라 판소리처럼 한 사람이 일어서서唱을 하는데, 북(鼓)과 판(板)의 박자에 맞추어 아니리와 창을 엮어서 부르는 說唱 형식의 공연이다. 곡조로는 頭板·二板·三板이 있다. 대표적인 작품은 『楊家將』, 『呼家將』, 『隋唐演義』 등이다.

최근 호집서회에 참가하는 서하대고 예인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틈을 내어 배우는 아마추어 說唱人이 많고, 서하대로 공연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전문 예인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서하대고 설창 예인들은 노인 장례식 초청되어 공연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혼이나 생신 축하연 때도 공연하여 생계를 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⁴⁾



西河大鼓 公演과 唱本

7. 山東大鼓

北方地域 大鼓의 원조라 칭하기도 하는 ‘山東大鼓’는 明代 말엽 시작되어 2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명칭은 ‘犁鏵大鼓’였다고 하는데, 이는 반주 악기로犁鏵 조각을 사용했기 때문이다.²⁵⁾

24) 필자는 2014년 河北省 保定의 농촌을 찾아가 서하대고 전문 예인의 일상을 조사한 적이 있다.(아래 사진 참조) 保定의 서하대고 전문 예인은 스승의 唱本을 전수받아 설창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전문 예인 중 가장 젊은 사람이 54세일 만큼 노령화되어 계승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5) 山東大鼓는 ‘梨花大鼓’라 칭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犁鏵’와 ‘梨花’가 발음이 비슷해 사람들이 좀 더 기억하기 쉬운 ‘梨花’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 山東大鼓를 전승

山東大鼓는 초기에는 대체로 혼자서 공연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두 사람이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 山東大鼓의 원래 형태는 1인창이었지만, 2인이 공연을 할 경우 좀 더 다양한 노래가 가능하고 관중들이 1인창보다 2인창을 선호하면서 2인 공연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반주 악기로는 작은 북인 ‘矮脚小鼓’와 ‘月牙板’(梨花片이라고도 함) 그리고 大三弦을 사용한다.

山東大鼓의 曲目은 『三國演義』 속의 고사가 가장 많아 『東嶺關』, 『長坂坡』, 『河北尋兄』 등 60여 작품이나 된다. 그 다음으로는 『紅樓夢』 이야기로 『黛玉葬花』, 『寶玉探病』 등 10여 가지가 있다. 또 『水滸』 이야기도 노래하는데 『李逵奪魚』, 『燕青打擂』 등이 그것이다.



山東大鼓

8. 山東快書

山東省 臨淸、濟寧、兗州 일대 특히 臨淸 지역이 주요 발원지로 알려져 있으며, 약 2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山東快書는 “二、二、三” 구조의 七字句를 기본 형식으로 하며, 왼손에 반주 악기인 銅板(鴛鴦板이라고도 함)을 쥐고 판소리처럼 창과 아니리를 섞어 가며 공연하며, 순박하고 호방한 풍

해 온 원로 예인들의 구두 증언에 의하면, 山東大鼓는 漁鼓道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전해진다. 漁鼓道情은 ‘花腔漁鼓’라고도 하는데, 공연자는 왼팔에 반주 악기인 漁鼓를 끼안고, 왼손으론 簡板(대나무판 악기)을 오른손으로는 북을 치며 노래하는 설창 예술이다.

격을 갖고 있다. 韻誦體에 속하는 산동쾌서는 공연 시 腔調를 넣지는 않지만 리듬성이 매우 강하며, 명랑하고 생동감을 주는 ‘빠오푸(包袱)’가 들어 있다.

曲目は 『水滸』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武松打虎』、『東岳廟』、『景陽崗』、『獅子樓』、『十字坡』、『魯達除霸』、『大鬧馬家店』、『李逵奪魚』、『白虎庄』 등이 대표 작품이다. 山東快書의 流派는 크게 高元鈞派²⁶⁾、楊立德派、劉司昌派 세 파로 나뉜다.



山東快書

이상 여덟 가지는 胡集書會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說唱藝術이다. 이외에 호 집서회 개최 당일이 되면, 공식으로 집계되지 않은 泰山皮影戲、河南墜子 등 전국 유랑 예인들의 다양한 곡예를 볼 수 있다.

V. 馬街書會와의 비교

馬街書會는 胡集書會보다 규모가 훨씬 커서 오늘날 중국 민간곡예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중국 최대 강창 경연대회이다. 河南省 寶豐縣 馬街村에서 거행되는 馬街書會는 속칭 ‘十三馬街會’라고도 하며, 元나라 延佑年間

26) 高元鈞派는 널리 유포되어 영향력이 가장 커서 문하생도 많이 배출하였다. 高元鈞派의 예술적 특색은 동작이 비교적 크고 해학적인 성향이 짙어 ‘滑稽快書’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AD 1316年 무렵)에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²⁷⁾

胡集書會 다음날인 정월 13일에 열리는 馬街書會는 河南省을 비롯하여 安徽、河北、山東、湖北、陝西、四川 등에서 수백 명의 유랑예인들이 모여 河南墜子、湖北漁鼓、四川清音、山東琴書、鳳陽花鼓、上海平話、徐州琴書、三弦書、大鼓書、評書、亂彈、道情 등 다양한 종목으로 曲藝 競演을 벌인다.

아래 사진은 필자가 2013년 정월 13일 寶豐縣에서 촬영한 馬家書會의 모습이다. 당시의 馬街書會는 胡集書會의 2-30배 되는 엄청난 규모로 개최되어 ---주최측에 따르면, 금년 마가서회에 초청된 설서인은 총 1,518인, 설치된 說書棚은 297개로 세계 최대 민간곡예 대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²⁸⁾--- 마치 『清明上河圖』²⁹⁾에 나오는 汴京(현재 開封)의 야단법석 장터와 당시 극장가였던 瓦舍와 勾欄의 옛 모습을 재현했다고 할 만큼 성대했다. 판식체 희곡의 전통과 지속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馬街書會의 구체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胡集書會처럼 전형적인 講+唱 형식의 공연이 대부분이며, 운문 부분은 7언 내지는 10언 제언구 歌詞로 되어 있다.

27) 馬街書會의 유래는 약 700년 전 馬街村에 살았던 馬德平이란 나이 많은 설서인과 관련이 있다. 빼어난 이야기꾼인 馬德平은 전국에 수많은 제자를 두었는데 1년에 한 번 스승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고, 이때 경연을 펼친 것이 馬街書會의 시작이 되었다.

28) “[기네스북] 세계기록 증서에 의하면, 2013년 2월 22일 중국 河南省 平頂山市 寶豐縣에서 거행된 2013년도 寶豐 馬街書會는 1, 518명의 민간 예인이 참가해 297개의 설창부스를 개설해 공연함으로써 민간곡예대회사상 세계 최고 기록을 갱신하였다.(世界紀象証書中說, 2013年2月22日, 2013年度寶豐馬街書會在中國河南省平頂山市寶豐縣馬街村舉行, 共有1518位民間藝人參加大會, 說書棚[攤] 297棚, 創世界最大規模的民間曲藝大會世界紀象.)”【河南省人民政府网站, 2013.2.25.】

29) 북송 황실의 화가 張擇端(AD 1085-1145)이 북송의 수도 변경 거리의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해 그린 긴 두루마리의 풍속화다. 北宋의 도성 汴京(현재의 開封)은 당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시민들을 위한 수많은 길거리 공연이 펼쳐졌다. 당시 변경의 극장가를 瓦舍라 했고, 瓦舍에는 여러 구란(勾欄)이 늘어서 있었으며, 이곳에서 雜劇、雜技、說渾話、講史、說書、說渾話、皮影、傀儡、散樂、諸宮調 등이 공연되었다.



馬街書會 全景

- 둘째, 경연대회 장소가 하남성인 탓에 河南墜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셋째, 반주 악기로는 북[鼓]과 木板 그리고 鴛鴦板이 사용되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기는 三弦이다. 이는 鼓詞의 성격이 강한 胡集書會와 달리 馬街書會는 彈詞의 성격이 강함을 보여준다.
- 넷째, 이야기꾼들은 연행 도구로 부채를 常用한다.
- 다섯째, 설창예인들은 주최 측이 제공하는 여비와 공연비를 받아 참여하며, 지급받는 경비는 대략 2-3,000위안이다. 평소 설창예인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한 차례 공연해주고 받는 비용은 3-400위안 내외이다.
- 여섯째, 송대 구란(勾欄)처럼 說書棚(攤)을 정해진 구역에 설치하여 공연토록 한다. 금년에 설치된 說書棚은 근 300곳이며, 공연된 劇目은 100여 개이다.

馬街書會는 점차 사라져가는 중국 민간극예의 전통을 재현하고 있는 소중한 행사이다. 비록 현대화되고 주최 측의 임의적인 장소 선정 등으로 인해 실제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수많은 盲人 說書人의 연행, 說書棚의 설치, 허름한 書鼓와 三弦을 들고 있는 老藝人의 모습 등은 오늘날 쉽게 보기 어려운 귀중한 민속학적 자료임에 틀림없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馬街書會 그리고 이 논문에서 소개한 胡集書會를 통해 돈황 강창문학 텍스트에서 모습을 드러낸 板式體 講唱이 오늘날 민간 극예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VI. 結論

山東省 濱州市 惠民縣 胡集鎮은 사방 백여 리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읍으로 과거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이었다. 胡集鎮 근방 마을 사람들은 春節이 지난 후 元宵節을 즐기기 위해 호집진으로 대거 몰려와 가정 용품 등을 구입하곤 했는데, 유랑 설서인들은 이 시기를 맞추어 이곳에 와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성대한 胡集書會로 확대되었다.

胡集書會는 원나라 때 시작되어 淸初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현재까지도 계승되어 7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2006년 5월 20일 산둥성 惠民縣에서 등록 신청한 胡集書會는 국무원 비준을 받아 국가1급 무형문화유산 목록³⁰⁾에 등재되었다.

필자가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胡集書會를 답사하여 파악한 호집서회의 주요 가치와 특징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희곡사는 板式體 희곡과 聯曲體 희곡이 함께 병행 발전해왔고, 특히 판식체희곡의 전통은 돈황 강창문학 寫卷의 등장 이후 寶卷、說唱詞

30) 중국어로는 ‘第一批國家級非物質文化遺產名錄’로 표기함.

話、儼戲 등의 자료가 꾸준히 발견되면서 증명되어 왔다. 오늘날 거행되고 있는 胡集書會는 중국회곡사에서 판식체회곡이 끊임없이 명맥을 이어 발전해 왔고,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中國 民間曲藝의 活化石”이다.

둘째, 胡集書會에서 공연되는 설창 종목들은 전형적인 講+唱 형식의 공연이 대부분이며, 운문 부분은 7언 내지는 10언 제언구 歌詞로 되어 있다. 반주에는 三絃, 竹板 등 여러 악기도 쓰이지만 북(鼓)이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

셋째, 胡集書會에서 공연되는 종목들은 木板大鼓, 梅花大鼓, 木板書, 滄州木板, 西河大鼓, 渤海大鼓, 相聲, 毛竹板書, 評書, 山東快書, 山東琴書, 漁鼓書 등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북을 사용하는 鼓詞(혹은 鼓書)류이다.

넷째, 한국의 판소리는 현재 盤騷里, 鼓書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필자는 판소리가 기본적으로 板式體 戲曲이라는 점 그리고 판소리의 ‘판’이 ‘板’, ‘소리’는 ‘聲’과 맞아 떨어지므로 ‘板聲’으로 표기됨이 옳다고 본다. 또 판소리의 연원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고 밝혀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 필자가 胡集書會를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날 원형을 찾을 길이 없는 중국 고대 설창 예술의 흔적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판소리와의 연계성도 새롭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세계 판소리형 전통 공연들과 연계하여 연구를 확대하면 ‘판소리로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參考文獻

- 韓克順 著, 『胡集書會』, 中國文聯出版社, 2010
- 高文晶·郭文慧, 「探究政府主導型展會所面臨的問題和挑戰——以胡集書會為例」, 『網絡財富』, 2010(13), pp.67-68
- 王加華, 「當下民間說書藝人的生存困境及其應對策略——以胡集書會參會藝人爲中心的探討」, 『文化遺產』, 2013
- 張獻青·門玉彪·張占春, 「星月流響天地留言——對首批國家非物質文化遺產山東胡集書會的思考」, 『社會科學論壇』, 2006.
- 岳永逸, 「近代都市社會的一個底邊階級——北京天橋藝人的來源、認同與譯寫」, 『民俗研究』, 2007
- 王加華·張玉, 「集市與表演:鄉村市集與胡集書會關係探析——兼及胡集書會的保護與傳承之道」, 『山東社會科學』, 2011
- 王加華·張玉, 「集市與表演:鄉村市集與胡集書會關係探析」, 『山東社會科學』, 2011
- 田曉劍, 「民間藝術的“活化石”——胡集書會」, 『鄉鎮論壇』, 2013
- 王加華·張玉, 「集市與表演:鄉村市集與胡集書會關係探析——兼及胡集書會的保護與傳承之道」, 『山東社會科學』, 2012
- 趙艷喜, 「胡集書會:“政府買單”後的傳承與發展——兼論當下非物質文化遺產保護中政府介入的問題」, 『戲劇叢刊』, 2013
- 衛才華, 「山西高平八音樂班與民俗禮儀細樂調查——兼論新時期鄉民藝術的傳承特點」, 『文化遺產』, 2013
- 高喜軍, 「不散的書場——馬街書會的魅力」, 『大眾文藝』, 2009
- 박은옥, 「중국의 서사(敍事)음악-곡예(曲藝)음악」, 『관소리연구』(제26호), 2008
- 지수용, 「관소리의 장르적 성격에 대하여」, 『관소리연구』(제34호), 2012
- 이정재, 「講唱, 說唱, 曲藝 개념의 재검토와 口碑演行論의 가능성」, 『중국문학』(제54호), 2008
- 전홍철, 「돈황 강창문학과 판식체 희곡의 문학사적 의미」, 『중어중문학』(제54집), 2013

전홍철 촬영·편집, 「胡集書會」(2013) QR 코드.



胡集書會(2013)

Abstract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Huji Storyteller Festival

Chun, Hong-chul

Huji Storyteller Festival(胡集書會) is the living fossil of Chinese folk speak-sing literature. Huji Storyteller Festival begins on Lunar New Year 12. Huji Storyteller Festival is the contest storyteller.

I've visited Hujizhen(胡集镇) to study Huji Storyteller Festival in 2012 and 2014. Chinese Traditional speak-sing performances are now increasingly disappearing. Chinese Traditional speak-sing performances of Huji Storyteller Festival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Korea traditional 'Pansori(板聲)'. Huji Storyteller Festival of Shandong Province and Majie Storyteller Festival of Henan Province are the largest Folk Music festival in China. Traditional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festival are many wandering storytellers in Shandong Province, and also storytellers from other places.

Huji Storyteller Festival are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Chinese folk speak-sing literature. It can reveal the secrets of Chinese Ancient Drama through a study of Huji Storyteller Festival. There are similar speak-sing performances around the world. Above all, in order to uncover the origin of Pansori it must study on Huji Storyteller Festival. This article is written based on a field survey in Shandong Province.

Key words : Chinese Ancient Drama, speak-sing literature, Chinese Storyteller, Quyi, Pansori

투 고 일 : 2016. 1. 10. / 심 사 일 : 2016. 1. 15.~ 2016. 2. 15. / 게재확정일 : 2016. 2. 16.